개혁신학 양서연재 4

존 칼빈(John Calvin)과 성령의 인치심(II)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사인 Willem van't Spijker(1926-)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pp. 69-79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교수는 197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써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트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 (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써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Calv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칼빈은 예정론을 성령의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예정론은 거기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의 정점으로 작용한다. 이 칭의는 순수한 은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은혜의 완전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보다 더 나은 도구를 생각할 수 없는데, 예정론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에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도는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이 끼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예정론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사고에 의해 지배된다. 비록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되지만 구원의 어떤 행위도 시간이나 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끈을 시간 안에 놓는 분이시다. 또한 성령 자신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을 이루는 끈이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 시간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성령의 증거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 드러낸다. 성령의 이러한 증거는 먼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형제들의 선택에 관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궁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선택되었다고 간주하도록 이 사실은 오히려 부르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함에 대한 표징에 해당된다.(벧전 1:1)"

시몬 판 데르 린드(Simon van der Linde) 교수는 칼빈의 성령론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의미를 지닌 몇 가지 본문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 은혜는 열매 없이 머무르지 않

는다. 주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인치신다. 비밀스러운 사실로 내려가거나 올라감으로서 우리가 선택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실성을 찾는 것 보다 더 위험하거나 거꾸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르심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지함과 올바름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함을 받았음을 깨닫기 위해서 ... 그가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법적 증명서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며 성령은 이를 인치신다. 더욱이 우리를 중생하도록 만든 복음에 대한 신뢰와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긴다.' 여기에서 칼빈은 또한 믿음이 그 기초를 둔 복음의 약속을 지적한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증에 해당하는 성령의 사역, 중생의 은혜를 언급한다. 중생, 즉 모든 삶에 대한 영적 부흥이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질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확실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함이 확실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확실성은 은혜, 복음, 그리고 성령의 증거에 달린 것인데 이를 통해 복음이 우리 삶에서 확고해진다. 칼빈 자신은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은사를 선택에 대한 표징으로 말한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가 비밀스러운 선택에 대한 참된 표징이므로 성령이 수여하시는 은사를 아주 드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아주 조심스럽다(빌 4:3). 그 표징에 대해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실에 대해 사람이 판단하게 된다. '우리는 표징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의 선택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 삼음에 대한 표징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그 분이, 그 책이 공개될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선언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게 될 것이며 염소들로부터 양을 분리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자기 양떼들을 우리에 모으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는 목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식 가능한 성령의 은사는 신비스러운 선택의 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령의 증거 또는 성령의 인치심은 인식을 위한 표징으로 존재하는데 이 표징은 형제들 상호간에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는 믿는 자 자신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유효하다.

칼빈은 다양한 곳에서 부르심과 선택을 서로 연관시켰다. 즉 선택의 확실성은 부르심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6:40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더욱 분명히 양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 ' 칼빈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를 언급했다. ...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의 영원한 결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유효화하고 실행에 옮기실 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선택

에 관하여 호기심을 지니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숨겨진 것이며 신비롭다. 주님은 우리를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부르심을 통해 선택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생을 선택을 정해진 길에 굳건히 머무르지 않은 채 예정이라는 미궁에서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렇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 견해를 수용하여 예정의 능력과 효능을 파괴해버린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될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선택을 파기해 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안에 세워진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부르심과 분리할 수 없는 끈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겨 넣은 인장을 가지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과 같이, 선택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는 양자 삼음에 대한 인치심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이므로 사람이 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또한 성령의 단순한 증거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성령에 대하여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칼빈에게 성령의 증거는 인치심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인치심은 성령의 사역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믿음에 활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복음의 약속, 즉 믿음의 기초위에 놓게 될 때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인장은 이 약속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

나님의 책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를 신뢰하는 것이며,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 즉 선택의 거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표식을 지닌 확실함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인침을 받은 성령은 확실함을 가져다주시는데 이는 말씀의 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다준다. 만약 믿음에서 말씀을 제거해 버린다면 믿음이 전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말씀의 확실성은 또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기초이다.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지게 되는데 이는 확실한 인치심으로서 이를 통해 약속이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확실성과 믿음의 확실성 속에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논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확실성을 제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약속의 능력을 인장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그는 장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인장이며 우리 마음은 이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된다(『기독교 강요』 III, 24, 8). 말씀, 믿음과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장으로서의 성령과 관계되는 핵심 용어에 해당된다.

칼빈은 삶의 성화와 관련지어서 이 측면을 거듭해서 설명한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선택이 없다면 인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화가 없는 곳에 인치심이 논의될 수 없다. 인치시는 성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생의 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다(『기독교 강요』 III, 24, 8).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차이를 주장한다. 그는 이를 부르심의

두 가지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외적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보편적 부르심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일어나며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된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과 관계된 것이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입회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성화로 옷 입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적 부르심은 결정적이지 않다.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 있어서 이를 배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판단으로 최선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아신다. 성화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인치심이 결여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를 삶의 새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화의 영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다.

칼빈은 중생의 영을 언급한다. 그는 이 용어를 신앙고백서(역자주: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가리킴)에 언급된 것과 똑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중생함을 얻는다. 우리는 도르트 신경(Dordt Cannon)이 중생의 개념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는 정확히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중생은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의 행위이다. 칼빈도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을 논할 수 있다. 칼빈에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그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전체적 삶의 성화, 영적 갱신의 의미로 사용한다. 종교개혁은 도덕을 포기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자유로운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에 관한 설교는 조심스럽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항해서 칼빈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믿음의 힘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순서에 얽매이지 않았다. 칼빈은 구원의 순서를 연대기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교제로부터 갱신, 칭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 부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선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분리할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치심이 중생의 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칼빈은 성경이 증거하는 인치심과 성화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지적한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인장으로 새겨진 성령의 증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해서 죄씻음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유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순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III, 1,1).' 성화와 인치심은 직접적인 상호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위에 언급된 사실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베드로전서 1:2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려질 수 없다.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칼빈은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판단은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이다. 나머지 경우에 선택에 관하여 사람들은 열매에 따라, 즉 결과와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은혜에 관해서 말할 때 이는 우리가 언급

할 수 있는 단지 한 가지 원인에 관계된 것이다. 이 한 가지 원인이란 하나님의 호의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강제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선택하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달리 한다면(칼빈은 이를 거꾸로 한다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너무 깊은 미궁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 열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서 복음에 대한 외적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성령의 내적 움직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요약하는 차원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흘러나온다는 요약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를 믿음의 경험이라는 차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결과 또는 목적,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해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죄씻음 받았음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의 의가 삶의 새로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 또한 부르심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벧전 1:2). 칼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삶의 순수함이 선택의 아주 정당한 표징이자 증거로 불리워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 아니라 자신을 이 믿음에 확증하게 된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기초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놓여 있음을 확증하게 된다. 사실적 확고함은 그들의 의식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거룩함에서 확실한 것

으로 보인다.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결과로부터 보여진다.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식의 근원은 말씀, 복음 그리고 약속에 놓여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단지 그 분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분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원천과 힘이 놓여 있으며 성령의 사역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

성례는 성령의 인장이라는 사실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며 인치심을 받는다(네덜란드신앙고백서, 제 27조). 성령은 이를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 수단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생각하신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의 사용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인치시려는 의도로 제정하신 가시적 표징이며 인장이다(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답 66). 믿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언약의 예표로서 이를 인쳐야 한다(네덜란드신앙고백서, 34).

또한 세례를 위한 공식 안내서(역주, 세례의 집례를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대부분의 신앙고백서에 포함되어 있음)의 표현들 또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세례는 관습이나 미신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인치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씻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인치신다. 성부 하나님 자신이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언약을 세우셨음을 증거하시고 인치신다. 성자는 그가 자신의 보혈로 우리

를 씻었음을 우리에게 인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인장이며 이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이다. 세례이후 행해지는 감사 기도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가 이를 우리에게 거룩한 세례로 인치시고 유효하게 만드신 그의 은혜를 찬양한다. 비록 세례를 위한 공식 안내서에 '인치심' 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인치시기 위해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언약의 표징과 인장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른다. 또한 다른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서에도 성례에 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주어져 있다. '인치심' 의 개념을 성례에 관한 설명에 적용한 것은 특별히 칼빈이었다.

칼빈과 불링거(Bullinger)는 1549년에 성례와 그 의미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 화해의 문서에서 칼빈은 자신의 신학에 있어서 본질적 동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사고이다. 교회와 그 제정에 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야만 한다. 교회 정치의 모든 방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는 목적 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지니지 않고 있다. 성례에 관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분은 우리가 양자됨에 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이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분과의 교제가 일어난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복음에 관한 설교와 성례전의 집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맺는 교제에 대한 표징과 인장이라는 목적을 제외한 어떤 다른 목적도 지니지 않는다. 성례전은 감사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그

러나 성례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께서 이를 통해 그의 은혜를 입증하시고, 수여하시고 인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장을 통해 확증되며 확실해진다. 칼빈은 여기에서 표징과 표시되는 실제를 구분한다. 표징은 사물을 가리킨다. 성례전의 실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놓여 있다. 그 자체로서 성례전은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성례전은 복음의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기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바로 그 분이시다. 그는 성례전이 나타내는 바를 충족시키신다. 그는 이 수단을 사용하시되 그 모든 효력이 반드시 성령에게 인정되도록 사용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성례전은 때로는 인장으로 불리워지며 사람은 성례전이 믿음을 먹이고, 강화시키고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의미에서 단지 성령만이 인장이라고 불리워진다. 성령은 믿음을 확실히 시작하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성례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그러나 수단 자체가 결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성령이 인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치신다. 칼빈은 더 강하게 성례의 의미를 설명 설명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을 통하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복음의 약속은 인쳐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니게 하시며 우리를 그 분 안에 확증시키신 성령 자신이 인장에 해당된다.

칼빈의 성례론에서 실제로 모든 것은 그가 말씀, 믿음, 선택과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되돌아간다. 성령과 성례전을 인장으로 언급한 그의 견해는 앞서 언급된

것과 관련된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성령의 사역을 언급함에 있어서 항상 말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선택의 은혜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말한다. 또한 중재, 즉 말씀에 의한, 그리고 성례전에 의한 구원의 중재를 항상 언급하지만 항상 성령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 분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성령은 구원의 실재가 우리 삶에 전달되는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장이므로 성례전은 단지 인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말할 때, 흔히 '언약과 세례를 둘러싼 세기의 논쟁'이 가져다 준 결과로 인해 부담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상실해 버리고 혼란을 야기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칼빈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진행되었던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칼빈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칼빈의 전선은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은혜와 구원을 내면화하였던 재세례파가 있으며, 또 다른 편에는 방대한 성례신학을 지닌 로마의 견해가 있다. 칼빈은 두 단어로 양 진영의 주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종교개혁 진영 상호간에 벌어진 고집스러운 오해를 불식시켰다. 그는 질문들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현상적으로만,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였지만 급속하게 퍼져 나간 딜레마를 뛰어넘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 때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의 영과 그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는 또한 성례전의 사용을 통해서 확신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례자동주의

(sacramental automatism)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향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반드시 확실해져야 한다. 복음의 약속은 설교되며 그 힘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 성찬은 시행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된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인치신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례전의 진리가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약속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치는데 이 약속은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슴에 인쳐진 것이다.